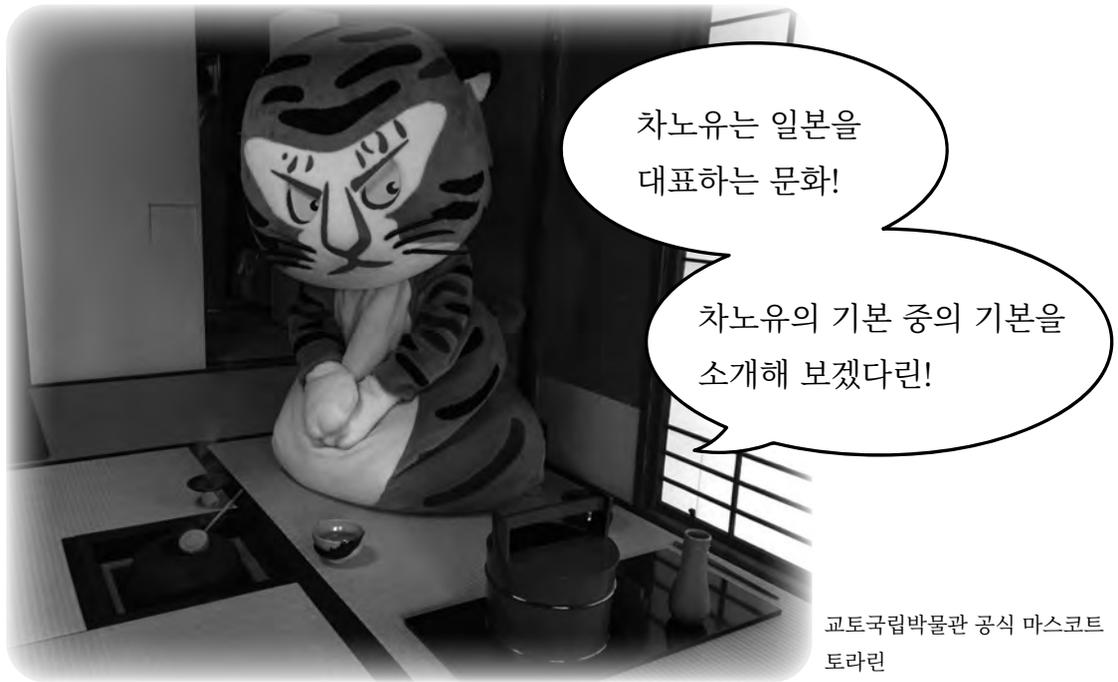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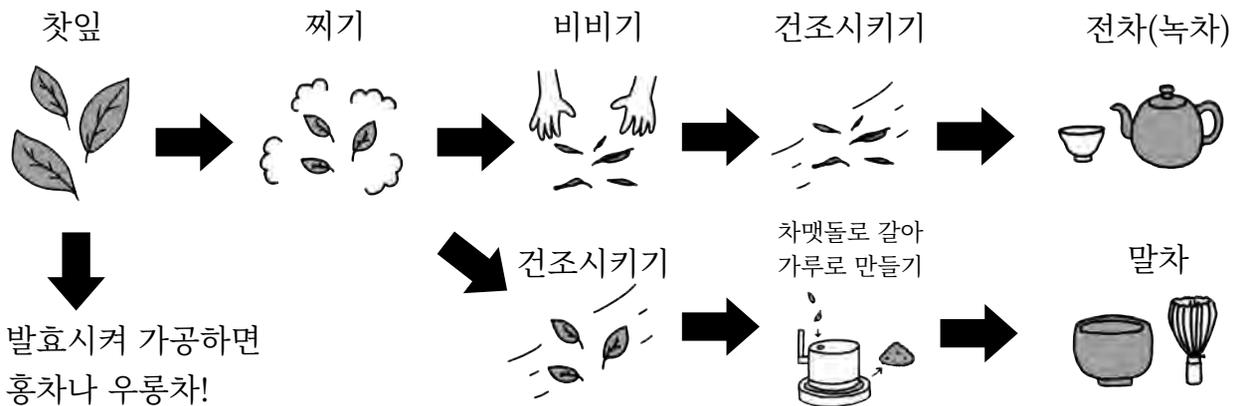


# 차노유 첫걸음



## '차'란?

우리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차로는 녹차, 말차, 홍차, 호지차, 우롱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들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달라질 뿐, 모두 차나무의 잎으로 만듭니다.



# 다실과 다구

다실에서 말차를 대접할 때는 여러 가지 도구가 사용됩니다. 어떤 도구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차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은 어떤 테마로 차를 대접할지 잘 생각해서 정성을 담아 준비한다!

## 도코(도코노마)

바닥을 한 단 높게 올린 공간. 족자나 꽃, 향합 등을 장식합니다.

## 족자

차 모임의 테마에 맞추어 장식합니다. 차노유와 관련된 심오한 문구나 편지, 일본 시가인 와카, 그림 등 여러 가지 족자를 사용합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갖고 있었다!



중요문화재 원포귀범도: 멀리 포구로 돌아오는 돛배 목계 그림으로 전해짐  
중국 남송시대 13세기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후반기 전시(11월 8일-12월 4일)

## 하나이레

도코(床, 바닥을 한 단 높게 올린 공간)에 놓는 꽃병 등의 꽃장식 도구.



그 유명한 다인, 센노 리큐도 차 모임 때 썼다구!?



중요문화재  
기세토 세운 북 모양 꽃병  
별명: 다비마쿠라(여행지의 베개)  
모모야마시대 16세기  
오사카 이즈미시 구보소기념미술관 소장  
후반기 전시(11월 8일-12월 4일)

## 향합

향을 넣는 뚜껑 달린 작은 합.

## 화로

다실 바닥에 만들어진 작은 화로. 숯으로 불을 피워 솥에 물을 끓일 때 사용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손님 자리에서 떨어진 곳에 풍로를 놓고 씁니다.

## 솥

물을 끓이는 도구. 대개 철로 만듭니다.



중요문화재  
아시아 해변 소나무 그림 솥  
[신나라가마]  
무로마치시대 15세기  
문화청 소장  
전·후반기 전시

손님이 앉는 자리

주인이 앉는 자리

교토국립박물관 다실 단안(堪庵)

## 뚜껑 있는 가루차통

말차(가루차)를 넣는 통으로, 소재도 형태도 이름도 다양합니다. 진한 가루차와 옅은 가루차를 넣는 통이 따로 있습니다.



중국 수입[가라모노] 각진 어깨 가루차통 별명: 잔게쓰(새벽달)  
중국 남송-원시대 13-14세기  
문화청 소장 전반기 전시(10월 8일-11월 6일)

## 찾사발

말차를 마실 때 쓰는 그릇.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중요문화재  
큰 이도 찾사발(오이도 다완) 별명: 쓰쓰이즈쓰(우물을 감싸는 원통 모양 틀)  
한반도 조선시대 16세기  
전·후반기 전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마음을 사로잡은 찾사발!



## 찾솔

말차 가루와 더운물을 섞어 휘젓는 도구. 대나무로 만듭니다.

## 물항아리

깨끗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은 솥에 물을 더 채우거나 찾사발과 찾솔을 행굴 때 씁니다.



주객으로 대담하게 깎고 무늬를 넣었어.

비젠 화살 오니 모양 입에 귀 달린 물항아리  
모모야마시대 16세기  
문화청 소장  
전·후반기 전시

## 찾순가락[차샤쿠]

가루차를 뜨는 순가락.

센노 리큐가 만들어서 다이묘에게 선물로 보냈다!



대나무 찾순가락[차샤쿠]  
별명: 다다이에사마(다다이에 님)  
센노 리큐 만들  
모모야마시대 16세기  
기타무라미술관 소장  
전반기 전시(10월 8일-11월 6일)



# 차노유를 즐긴 다양한 사람들

차는 처음 중국에서 일본에 전해졌을 때는 약으로 쓰였었어. 일본에서 차는 어떤 식으로 퍼져 나갔을까?



## 나라시대(710-794)

중국에서 일본으로 차가 전해졌습니다.



## 헤이안시대(794-1185)가 끝날 무렵

차 가루를 더운물에 녹여 마셨습니다.

## 가마쿠라시대(1185-1333)

불교 가르침의 하나인 '선'을 배우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던 승려들이 말차를 마시는 풍습과 다구를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건 요사이라는 스님이 쓴 차에 관한 책을 일부 옮겨 적은 거야. 일본에서 처음으로 쓴 차 서적이야. 술을 많이 마시고 괴로워하던 쇼군에게 차랑 같이 이 책을 바쳤대.



킵차양생기(잔편)  
남북조시대 14세기  
교토 겐닌지 절 소장  
전·후반기 전시

남아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

## 무로마치시대(1392-1573)

무사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도구를 가라모노(唐物)라고 해서 수집했고 이들 가라모노를 이용해 차노유를 즐겼습니다.



이즈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차를 파는 가게가 생겼고 서민들도 차를 즐길 수 있게 되었지.

중요문화재 청자 찻사발 별명: 바코한(거털 못)  
메뚜기에 빗댄 명칭)  
중국 남송시대 13세기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전·후반기 전시



## 모모야마시대(1573-1615)

오사카 사카이시의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다인 센노 리큐가, 일상에서 쓰는 도구를 이용해 차를 즐기는 '와비차'라는 차노유 양식을 퍼트립니다.



센노 리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인정한 다인이다란!

중요문화재 검은 라쿠[구로라쿠] 찻사발  
별명: 무키구리(간 밤)  
조지로 만들  
모모야마시대 16세기  
문화청 소장 전·후반기 전시



## 에도시대(1615-1868)

차노유가 더욱 퍼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차노유를 즐깁니다.



중요문화재  
채색 비늘 파도 무늬 찻사발  
노노무라 닌세이 만들  
에도시대 17세기  
교토 기타무라미술관 소장  
전·후반기 전시

지금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차를 즐기고 있잖아? 차는 이렇게 이전 시대와 이어져 있는 거라구!

